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생활 안정·경제적 자립 위해 23~30일 대상자 모집

무주군이 취업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군은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18세부터 4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와 사업자, 농업인 모두 포함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기존보

다 20% 상향한 180%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40%, 재직 기간 30%, 연령 30%를 반영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LH 또는 전 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

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며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는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한파 대비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한파 대비 '주민 안전' 지킨다

진안군, 스마트 승강장·한파 쉼터 등 찾아 현장 행정 나서

진안군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한파 대비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군은 21일 기준 진안군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는 24일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주민 불편과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한파 대응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내 스마트 승강장과 한파 쉼터를 찾아 운영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이경영 부군수는 먼저 진안고원시장 스마트 승강장 개로 방문해 난방기 작동 상태와 출입문 개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백운면, 33개 마을 주민 소통 좌담회 추진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관내 33개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공유하고, 군 주요 시책 및 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지난해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2026년 민정 주요 추진 계획과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동향면, 28개 마을 순회 좌담회 개최

진안군 동향면(면장 이강희)은 병오년을 맞이하여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관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을 대비한 주요 군정시책을 홍보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소개하며 전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진안군의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진안방문의해, 2026년 전북도민체전 진안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 이후에는 마을별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생활 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농업 기반시설 개선, 고령자 생활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동향면은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요 현안 해결·국비 확보 총력

이정우 장수 부군수, 국회서 박희승·안호영 국회의원 만나 지원 건의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지원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 부군수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금강 첫물 생태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2027년 국가예산 반영 지원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 등이다.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관련 사업 반영 △동화림의 법건설관리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발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장수군은 생태관광 기반 확충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100만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부군수는 "연초 국회 방문을 통해 장수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지원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

장수군,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 가져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산불 감시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 업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과장, 산림보호팀장

및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 20여 명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 추진 방향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 취약지역 집중 감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수군은 산림 인접 지역과 입산객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더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감시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무 수칙과 무리한 단독 대응을 지양하는 등 안전 중심의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산불감시원은 군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공원공단,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겨울철 적설량 감소와 건조일 수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사를 포함한 전국 국립공원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별 통제가 시간과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덕유산의 경우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 통제 예정이었으나, 삼일절 대체휴무를 고려해 1일 뒤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할 예

정이다. 공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취약지역 집중 순찰 △무인 감시 장비 및 CCTV 활용 상시 감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 △초동 대응 태세 유지 등을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산불감시카메라를 총 92대까지 확대 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급경사지나 비법정 탐방로 등 감시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7대를 투입한다. 드론은 주·야간 산불 감시는 물론, 공중에서 산불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입체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